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의 무역흑자 감소와 소비자물가 상승

-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동기대비 4.9% 상승했다고 발표함.
 - 지난해 6월 2.9%였던 소비자물가가 11월에는 5.1%로 크게 상승했으며 12월에 4.6%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올 1월 다시 4.9%로 상승함.
 -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중국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수급 차질과 지속적인 임금상승 추세를 들 수 있음.
 - 이번 소비자물가 관련 통계 작성 시 중국 국가통계국이 물가산정 기준을 대폭 수정했으며, 일부에서는 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물가 수준을 왜곡했으며 실제 소비자물가 수준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.
 - 한편,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임금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2월 춘절(春節·중국 설) 연휴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물가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중국의 1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65억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작년 4월 1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적은 흑자규모임.
 - 1월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37.7%와 51% 증가했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수출은 2.2% 감소하였고 수입은 2.2% 증가함.
 -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수출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흑자 폭이 감소되고 있으며, 춘절 연휴 전 교역이 집중된 것도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함.

- 중국의 무역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요인과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됨.
 - 중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·통화량을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임금·곡물가격 상승으로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.
 -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방 강대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.

(China's prices rise 4.9%, Wall Street Journal, 2/15)